



11.7 전국노동자대회 정세와 과제

2024.12.30 1호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해설지 57호

2026.10.26

ch.kmwu.kr

노동조합의 투쟁은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하반기를 관통하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노조의 요구와 목표를 확인하고 결의합니다.

온 나라가 AI와 반도체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자본의 독차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 착취에는 속도를 올리는 메가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법' 추진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최대 4년) 등의 노동조건 후퇴가 모든 노동자에게 확산될 위기입니다.



자동차부품사는 완성차 자본의 원가절감 강요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탄소 규제와 구조조정 압박에 마주해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과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자본의 저항과 정부의 방관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기업복지에서 벗어난 퇴직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사회복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올해 하반기 투쟁 요구로 아래 8가지를 전면화하고 집중합니다.

1. 노조법 2조 실효성 강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타임오프제 폐기
2.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및 공급망 노동자 보호 입법 제정
3. 소득 공백 없는 온전한 정년연장법 입법
4. 방위산업 노동3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5.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사모펀드 규제와 노동자 보호책 마련
6. 중소기업 교섭 활성화법 입법
7. 메가특구 입법 과정에서의 노동기준 개악 시도 중단
8.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및 포괄임금제 금지

당장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투쟁이 전면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에는 △'하이트칼라 이그젬션' 일정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의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기준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특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파견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과 노동조건 후퇴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법 처리를 공식화한 만큼 '온전한 법정 정년연장'이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일할 권리가 되려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저임금 구조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질 낮은 일자리와 임금삭감을 강제하는 계속고용, 촉탁진 전환, 임금체계 개악을 전제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산다. 절망은 없다"

전태일 열사 일기장 맨 앞표지에 적힌 두 문장

1960년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연 8%)은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으로 가능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산업정책이란 노동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기계에 갈아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허리를 못 펴는 다락방에서 잠을 쫓는 각성제를 먹으며 미싱을 돌린 곳이 청계천 평화시장입니다. 당시 '시다' 여성 노동자의 나이는 13~15세였고, 노동시간은 하루 15~16시간이었습니다.

재단사 전태일은 이런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바꾸기 위해 노동부에 고발하고, 언론사에 투고하고, 독재자 박정희에게 편지도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노동자 모임(바보회)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고, 시장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조직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권의 탄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으로 1970년 11월 13일 분신을 택합니다. 살아남은 후배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모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일기장을 통해 "인생이란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더 나은 내일'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함께 살기 위한 연합이고 동맹입니다. 끊임없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를 되새기는 전국노동자대회! 11월 7일 서울로 모입니다. **함께**

